

신학과철학

제38호 2021 · 봄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과 신학적 전망: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토마스 베리의 지구학을 중심으로**

홍태희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과 신학적 전망: Ⅱ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토마스 베리의 지구학을 중심으로

홍태희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선임연구원

1. 들어가기
2. 유기체 철학의 생태론적 의미
 - 2.1 탈 인간중심적 주체성
 - 2.2 기계론과 유기체론
 - 2.3 목적론과 신의 문제
 - 2.4 생태 문제에 대한 문명적 접근
3. 토마스 베리의 지구학적 전망
 - 3.1 신생대의 종말
 - 3.2 생태대의 등장
 - 3.3 생태대의 조건
 - 3.3.1 인간 의식의 변화: 유기체로서의 지구 인식
 - 3.3.2 인류의 책임과 행동양식의 변화
 - 3.3.3 총체적 프로그램의 전환
4. 나가기: 신학적 전망

1. 들어가기

현대 문명에 관한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은 1972년 MIT 연구팀에서 인류의 미래에 관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성장의 한계』(Limit to Growth)¹⁾ 이후 사회 전반적 분야의 담론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보고서는 인류의 숫자와 산업 성장이 이미 지구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성장의 한계를 고려하는 기술과 시장에 관한 사회적 책임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지속할 수 있는 사회에 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의 제반 분야를 통하여, 나무를 가꾸고, 에너지를 전환하고, 재생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생태 경제적 활동의 접근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취약 계층이 잘되도록 보살피는 사회 공익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지속 가능성’에 관한 담론과 실천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지속 가능’(sustain)이라는 개념이 인간 문명을 전제로 ‘견디다’, ‘존속하다’, ‘보존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자연을 관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의미에 머무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2015년 발표한 회칙 『찬미받으소서』²⁾를 통하여 이러한 환경 개선적 지속 가능의 노력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 수 없다는 성찰을 보이며, 보다 ‘근본적 지속 가능성’(deep sustainability)을 위한 노력을 전면적으로 실천할 것을 제시하였다. 교종은 인간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느님이 권한을 주었다고 느끼는 신앙에 의해 약탈과 죄가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 결과(LS 2) “종말에 대한 예언은 더 이상 바깥거나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LS 161)는 위기의식을 제기하며, 지속가능하지 못한 미래를 도출한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하여 죄의식을 가지라고 요청하였다. 교종은 생태 문제에 관한 죄(ecological sin)는 ‘근본적 지속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물의 ‘상호연결성’이라는 기본 진리를 망각한 기억상실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몸은 지구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음”(LS 2)을 잊지 말아야 하며 모든 문제가 인간의 영적인 문제임을 자각하는 ‘생태적 회개’를 촉구하였다.

1) Donella Meadows, Jorgen Randers, Dennis Meadows, William Behrens, *Limits to Growth: A Report for the Club of Rome's Project on the Predicament of Mankind*, (New York: Universe Books, 1972).

2) 프란치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교황 회칙, (2015)』,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이하 LS.

토마스 베리(Thomas Berry, 1914-2009)는 보다 근본적이며 통합적인 지속 가능성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한 프란치스코 교종보다 더 근본적인 접근을 제시한다. “지구를 회복하는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어떤 방식의 인간을 위한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없다.”³⁾ 그는 그의 말은 ‘지속 가능성’을 넘어서 ‘생존 가능성’(viable)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주에 관한 역사적 관점에서 신학을 전개한 그는, 현대의 시대를 우주와 지구 문명의 진화 도상에서 인간의 문명이 지구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게 된 ‘신생대’(Cenozoic)의 마지막 지점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현대를 자연과의 공존을 자각하며 생명 중심의 지구공동체를 지향하는 ‘생태대’(Ecozoic)의 문명이 시작하는 시점으로 전망한다. 토마스 베리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제 문명이 전환되는 시점에 서 있다는 것을 자각할 것을 요청한다. 그것은 인간의 경제, 정치, 문화 전반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이동과 함께 정신적 전환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대 생태적 문제의 정신적 원인은 근대주의 이후 산업화와 함께 급격히 주류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인간 중심적인 주체론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인간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자연물을 정신적 주체성이 없는 도구적 객체로 인식하는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단기간 안에 근대 문명이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 중심적 사고에 잠재된 부정적 결과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생태적 문제들이 시나브로 누적되어 오면서, 21세기를 맞는 현대에 이르러 인류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은 모든 것의 존재 원리를 서양 철학의 주류로 이어오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자적 실체론으로부터 경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조성에서 파악하는 접근으로 전환함으로써 탈 인간 중심적 주체성 논의를 이끌었다. 그로부터 비롯된 과정 사상의 다양한 논의가 형이상학의 기초 아래 새로운 생태 문명의 시대를 위한 실천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교를 배경으로 생태 중심적 관점에서 토마스 베리가 제시한 생태대의 전망이 신학적 담론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지구계의 문명 전환에 관한 현세적 담론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이 제시하는 범-경험주의 주체성 논의와 유기체적 세계관의 방법론으로 신학을 이해하는 방식에 관하여 먼저 고찰하면서, 그것이 내포하고

3) Thomas Berry, “Christianity's Role in the Earth Project.” In *Christianity and Ecology*, edit. Dieter T. Hessel and Rosemary Radford Ruether, 127-34,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127.

있는 생태론적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토마스 베리가 주창한 ‘생태대’(ecozoic)의 맥락과 문명의 전환이라는 실천적 명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유기체 철학의 생태론적 의미

알프레드 화이트헤드(Alfred Whitehead, 1861-1947)는 인간의 경험 구조 자체를 사물들의 본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로 생각하여⁴⁾ 지금까지의 입자적 세계관에 의한 실체적 존재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존재론의 전환을 기획하였다. 그것은 역동적인 변화와 창조의 과정에서 방울방울(drops) 떨어지는 경험의 한 단위를 존재의 단위로 바라보는 것으로, 그의 형이상학은 정신과 물체를 이원적으로 조망하지 않고, 하나의 ‘현실적 존재’(actual entity) 혹은 ‘현실적 계기’(actual occasion) 안에 ‘물질적 극’(physical polar)과 ‘정신적 극’(mental polar)이 통합된 것으로 바라보았다. 즉 물이나 돌 등과 같은 자연적 사물들도 물질로서만 존재하는 세계의 수동적인 계기로서가 아니라 정신성의 강도만 차이가 있을 뿐 물질과 정신이 통합된 것으로서 스스로 주체적인 것으로 바라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주체성의 전제가 되는 정신을 오로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봄으로써 그 외 모든 자연적 창조물은 객체적 대상이 되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그 형이상학적 근원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2.1 탈 인간 중심적 주체성

그는 현실적 존재가 합생(合生, concrescence)⁵⁾의 경험을 통하여 실제로서 현존하게 되는 것을 존재의 근거로 설정하였다. 즉 존재가 있음으로써 과정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는 바로 경험 과정 그 자체일 뿐이라는 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과정 사상(Process

4) John B. Cobb, *A Christian Natural Theology*, 『화이트헤드 철학과 기독교 자연신학』, 이경호 옮김, (서울: 동과서, 2015), 47-49.

5) 화이트헤드가 관계적 생성의 원리로 설명한 ‘합생’이란 “다수의 사물로 구성된 우주가 그 다자의 각항을 새로운 일자의 구조 속에 결정적으로 종속시킴으로써 개체적 통일성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PR 211/424)라고 설명하고 있다. Alfred North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Corrected Edition, ed. David Ray Griffin and Donald W. Sherburne, (New York: The Free Press, [1929] [1978], 2013); 『과정과 실재: 유기체적 세계관의 구상』, 오영환 옮김, (서울: 민음사, 2003). 이하 PR.

Thought) 혹은 유기체 철학이라는 개념으로 체계화를 시도한 화이트헤드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관계적 합생을 형이상학적 존재 원리로 봄으로써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근본에서 부정하였다.

그가 “현실적 존재의 ‘있음’(실재적 현존)은 그 ‘생성’에 의해 구성된다.”(PR 23/87)고 말한 것은, 모든 현실적 존재란 스스로 어떤 방향성을 지나는 주체적 지향에 의해 그 계기의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상호 관계적인 경험 과정을 실제로 파악한 화이트헤드의 혁명적 존재론은 인간 혹은 생물중심주의를 뛰어넘어 전 우주의 모든 사물을 주체적 지향을 갖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자연물에 대한 ‘범-경험주의’(pan-experientialism)적 관점에서 세계의 존재 원리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인간 중심의 주체성에 관한 대안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체적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범-경험주의’라는 개념은 인간중심적 사고의 오류를 설명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에 대하여 데이비드 그리핀(David Griffin, 1939~)이 제안한 개념이다.⁶⁾ 인간이 직접 경험하기 불가능한 양자 단위의 미립자로부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는 상호간의 관계적 만남의 과정을 통하여 과거의 자기로부터 새로운 여건을 통합하여 새로운 존재로 생성, 즉 창조된다. 이러한 합생의 창조적 과정은 각 존재가 정신성의 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주체적 경험을 갖는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으로, 따라서 그 존재는 본유 가치(intrinsic value)를 지니는 것이다. 데카르트 이래 근대적 사유는 인간의 의식 행위로서의 이성을 주체성의 요건으로 봄으로써 인간중심주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화이트헤드의 범-경험주의적 관점은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체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써 인간중심주의로부터 생태중심주의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정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2.2 기계론과 유기체론

주체성의 문제와 함께 근대주의의 또 다른 문제는 세계의 작동 원리를 기계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이외의 사물과 생명체들의 정신성 혹은 주체적 지향성을

6) David Ray Griffin, 장왕식 옮김, 『화이트헤드 철학과 자연주의적 종교론』, (서울: 동과서, 2004), 184, 211.

무시하고 단순한 인과론의 과학적 사고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스스로 목적성을 가질 수 없는 존재로 파악된 모든 자연물은, 그러므로 인간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치만을 갖는 것으로 존재의 의미를 가져왔다.

이러한 기계론적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분리하여 생각하였던 이원론적 사고이다. 기존의 전통적 서구철학은 존재를 자기동일성을 유지하고 불변성을 갖는 입자적 실체로 보았으며, 동시에 물질이라는 실체와 의식적 경험의 본성으로서 정신이라는 이원성 하에서 조명하였다. 서구 사회를 지배하였던 그리스도교가 하느님과 인간,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여 보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서양에서 비롯된 근대주의적 사고 또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보다 기계론적으로 작동하는 신체와 그로부터 벗어나는 면을 지닌 정신을 지닌 존재로 인간을 파악하였다. 대부분의 동양 사상이 자연의 정신성을 인정하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 파악하는 통합적 관점을 가졌던 것과 대비한다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파악하였던 서구의 정신성이 근대주의 및 산업화와 만나게 됨으로써 반생태적인 문명을 생성하는 길을 걷게 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은 존재자들의 관계적 경험이 자신이 가진 여건들을 종합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것이 주관적인 목적을 갖지 않는 단순한 종합일 뿐이라면 그 또한 기계론적 도식과 동일하다. 기계론의 패러다임은 주어진 여건에서 새로움을 발생시키는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물의 현상을 관찰하는 과학자에 의해 미시 물리학의 분야에서는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어 심리적 정신적 의지가 작용하는 것이 관찰되기도 하고, 소립자의 운동이 연속적 흐름의 형태가 아니라 불연속적인 분출의 모습으로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자연물의 현상이나 인간의 사회에 있어서도 기계적 반응을 넘어서는 새로움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세기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결과들은 물질의 기본 단위로 알려졌던 원자를 기계론적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고,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은 그 합생과 사회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움에 주목하였다. 그는 존재의 생성 과정이란 ‘이접’(disjunctive)에서 ‘연접’(conjunctive)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합생의 과정을 통해서 ‘다자’(many)가 ‘일자’(one)로 되어 가는 것이 본성이라고 설명하였다.(PR 254/348) 그런데 그 ‘일자’는 과거의 ‘다자’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새로움이 창조되어 증가한다고 보았다.(PR 21/79) 합생을 통해 존

제가 증가하는 이유는 그 존재들이 각기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에 의해 과거로부터 주어진 여건들을 넘어서는 자발적 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화이트헤드는 그것을 ‘주체적 형식’(subjective form) 혹은 ‘주체적 지향’(subjective aim)이라고 하며, 이것은 바로 모든 존재의 주체성과 본유 가치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과정은 존재의 구조가 단순한 경험계기인 ‘현실적 존재’로부터 ‘복합체’(nexus)로 그리고 일정한 질서를 갖고 조직화한 ‘사회’(society)로서의 존재로 고도화되어 가면서 새로움의 정신성이 창조된다. 그리핀은 현실적 계기들이 복합되어 조직화한 사회 안에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하부 존재들의 계기뿐 아니라 그 공동체적 사회를 통합하여 통제하는(dominant) 목적의식을 가진 계기들이 발생하여 존재한다는 도식을 세웠고,⁷⁾ 이 주장을 발전시킨 조셉 브락켄(Joseph Bracken, 1930~)은 그것을 공동체로서 통합적이며 일관된 구조를 갖는 사회적 존재의 모델로 발전시켰다.⁸⁾

결과적으로 유기체 철학은 인간 중심적 주체론으로부터 범 경험주의적 만물 주체론으로의 전환을 이끌었으며, 그것은 인간의 의식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존재가 주체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 이외의 모든 것을 목적성이 없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근대적 기계론의 한계를 존재의 관계적 합성 과정에서 새로움이 발생하는 창조성에 관한 논리로 극복하는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2.3 목적론과 신의 문제

그리스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이 질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사물은 존재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은 그리스도교에 의해 받아들여져, 모든 사물이 최고선으로서의 하느님을 향한다는 개념으로 중세의 자연관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발전과 데카르트 이후 근대 철학의 기계론적 사고는 이러한 방식의 목적론이 사물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재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거부하였다. 근대주의에 의해 최고선으로서 신을 향한다는 목적론

7) David Ray Griffin, “Whitehead’s Philosophy and some General Notions of Physics and Biology”, *Mind in Nature: Essays on the Interface of Science and Philosophy*, Eds. John B. Cobb & David Griffi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77), 133.

8) 홍태희, 「삼위일체론의 생태신학적 함의-칼 라너, 조셉 브락켄, 레오나르도 보프의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20), 112-122.

은 폐기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 세계 내에서 주체성을 갖는 유일한 존재인 인간이 신을 대체함으로써 자연 세계는 인간을 위한 목적을 갖는다는 관념으로 변형되었다.

유기체 철학의 형이상학은 세계의 모든 존재가 지속적인 창조의 발생을 통하여 새로움을 창출하는 정신적인 면을 본성으로 갖고 있음을 밝힌다. 즉 모든 존재자가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새롭게 됨과 동시에 자신의 주체적 지향은 타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유기적 관계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안의 존재는 그 공동체가 갖는 이상과 목적을 고려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체의 이상을 따라 하나의 존재자는 주변 환경의 존재자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보다 높은 가치의 차원을 지향하게 된다. 이원자적 미립자로부터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존재들과 나아가 지구적, 우주적 단계로 존재의 구조화가 더해지며 공동체적 존재의 목적과 이상의 지향은 더 큰 존재 단계의 가치로서 실현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기체로서의 이러한 관계는 특정한 목적을 향한 어떤 강제적인 통제 의 방식으로 제시되거나 이끌어지는 것은 아니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신은 공동체들의 공동체가 지닌 목적을 직시하는 존재로서 세계 진화의 목적으로 상정된다.(PR 353) 그렇지만 통제의 방식이 아닌 창조의 궁극적 방향을 향하는 새로운 질서를 위한 ‘느낌의 유혹’(lure for feeling, PR 343-344)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가온다. 신은 창조성을 그 본성으로 갖는다. 그것은 신이 개념적 특성과 함께 물리적 특성도 함께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기체 철학은 그것을 신의 ‘원초적 본성’⁹⁾과 ‘결과적 본성’¹⁰⁾으로 설명하였고, 이와 같은 양극적 본성을 갖는 신의 개념은 고독한 절대적 초월자로 존재하는 신이라기보다 자신이 창조하는 세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공동으로 세계를 창조하는 신이다.

9) 화이트헤드가 설명한 신의 ‘원초적 본성’은 순수한 가능태로서 개념을 현실화(conceptual realization)하는 본성이라는 측면에서 개념적일 뿐 현실적 실재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창조의 과정에서 원초적 본성은 개념을 현실화하면서 최초의 지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화이트헤드는 이것에 관해서 “‘영원한 객체’와 관련된 질서를 부여하는 ‘느낌을 위한 유혹’(lure for feeling)이며 충동으로서 최초의 위상을 확립한다.”고 하였다.(PR 343-344) 끊임없이 창조성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신의 원초적 본성은 영원하고 비시간적이며 불변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창조되는 세계를 신의 목적을 향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초월적 성격을 갖는다.

10) 동시에 새롭게 합성하는 창조물들은 신 안에서 객체화되면서 신은 세계를 모든 새로운 창조물과 공유하게 되는데, 이것은 신이 세계와의 관계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모든 세계의 결과를 수용하여 자신에게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신의 ‘결과적 본성’으로, 세계를 끌어안는 신의 물리적 측면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세계를 창조해 가는 신과 함께 세계 역시 신을 새롭게 함으로써 상호 서로의 새로움을 위한 도구가 된다고 보았다.(PR 349).

생태론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창조란 일회적 사건의 성격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의 모든 경험 계기들이 연결망 안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합생’의 과정을 통해 지속하여 발생하는 창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생태적 관점을 갖는 신학에서 바라보는 창조주로서의 신은 세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으며 감동과 고통을 나누는 하느님이다. 이것이 전통 신학의 하느님의 불변성 개념과 상충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하느님의 불변성(immutability)과 고통받을 수 없음(impassibility)의 특성은 경륜적 차원에서 무한히 크신 하느님의 특성과 함께 새롭게 이해되고 있다.

2.4 생태 문제에 대한 문명적 접근

현대에 인류가 경험하게 된 환경 및 생태의 문제는 우선 환경 관리적 관점에서 출발하였지만, 이것 또한 인간 중심적 태도에서 파국의 개선을 위한 미봉책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생태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은 ‘심층생태론(Deep Ecology)’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자 네스(Arne Naess, 1912~2009)에 의해 생물권 평등주의(biospherical egalitarianism)를 기반으로 한 강령으로 발표되었다. 네스는 1984년 발표한 8개의 행동 강령에서 자연의 모든 존재자는 내재적 본유 가치를 가지며, 이들은 인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없고, 생태정책은 인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을 우선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 중심적인 ‘환경’이란 개념을 버리고 ‘생명의 그물망(web of lives)’ 혹은 ‘관계적-전체-장’(relational-total-field)이라는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이후 본유 가치, 평등, 다양성, 공생 등의 생태론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심층생태론의 주요 사유 중 하나가 인간의 간섭을 거부하는 생태 중심의 근원적이며 급진적인 원리이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자연의 모든 존재가 주체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골고루 본유의 가치를 갖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이 모든 존재자의 여건을 통합하는 면에서 특별한 수준의 위치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것은 존재자들 사이에서 구조화의 단계에 따른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칼 라너의 신학에서 인간이 가진 초월자에 대한 인식 능력에 의해 인간이 전 우주적 세계 공동체 안에서 정신으로서의 위치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유사한 접근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화이트헤드는 결코 인간중심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존재자에 대한 수준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구공동체적 관점에서 그 존재의 구조화에 관한 정도를 이해

하고자 하는 것일 뿐, 그의 철학의 핵심은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는 것이다.

유기체 철학의 원리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의 원인을 어느 하나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을 부정한다. 그런 점에서 결코 단일한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생태 문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 특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태문제는 단일한 접근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기후 위기의 문제를 예로 보더라도, 그것은 과학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에너지에 관한 경제적 문제이고,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며,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이다. 또한 정신적 영성의 문제이기도 하며 교육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본질을 놓치면 쉽사리 이데올로기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 위기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서는 총체적인 문명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종이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정신적 영성의 변화 없이는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관점을 표방하며,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기본자세로서 ‘생태적 회개’를 요청한 것은 문명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유기체 철학의 관점 또한 문명적 접근 없이는 생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성찰로부터 그에 기초한 ‘생태 문명’의 이식(移植)을 주요 실천적 과제로 다루고 있다.

우리가 문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이미 암묵적으로 인간의 문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의 생존 가능성이 질문되는 현대에 이러한 인간 중심적 문명 정의에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이제 인간 중심 문명으로부터 모든 자연의 존재자들을 포함하는 문명으로 전환에 관한 담론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고 인간은 손을 놓고 자연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 또한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역할에 무책임한 태도이다. 유기체 철학은 자연에 주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연과 생명에 기초하는 문명을 지향하지만, 그 또한 인간의 반성적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기체 철학이 물질적 극과 정신적 극의 통일체로서 존재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당연하는 문명 전환을 위한 노력은 자연 현상의 과학적 인식과 함께 모든 생태적 문명을 향한 목적론적 지향이 함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생태신학자인 토마스 베리가 주창한 생태대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연의 모든 존재의 생태적 문명을 향하는 영성적 실천적 측면의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토마스 베리의 지구학적 전망

미국의 대표적인 가톨릭 생태사상가인 토마스 베리는 자신을 신학자라기보다 지구학자(geologist)로 인식하였다.¹¹⁾ 지구의 역사와 우주의 진화를 과학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지구 문명을 우주 진화의 지평 안에서 조망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지구에 관한 생명지질학적 구분을 통하여 이제 커다란 한 시대가 전환의 시대에 도달했다고 전망하였다. 토마스 베리가 브라이언 스윔(Brian Swimme, 1950~)과 함께 집필한 『우주 이야기』¹²⁾는 우주와 지구의 역사를 조망하며 지구와 인류의 ‘생존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이제 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금 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희망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가 이 저서의 결론을 통하여 문명의 전환으로서 새롭게 도래하는 시대를 ‘생태대’로 정의하며 그것을 맞이하는 인간사회의 역할에 관한 전망을 전하였다. 새롭게 등장하는 ‘생태대’는 세상을 바라보는 인류의 관점이 물질과 정신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 모든 종의 생존 가능한 미래는 세계관을 포함한 인간의 통합적 문명의 전환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는 전망 하에서, 인류는 인간 사회의 네 가지 주체인 정치, 경제, 대학, 종교를 통하여 인간중심을 벗어나 새로운 문명을 건설해야 한다는 ‘위대한 과업’¹³⁾을 제시하고 있다.

3.1 신생대의 종말

토마스 베리는 그동안 실증적 탐구로 밝혀진 우주의 역사를 태초부터 진화되어 오는 역동적 흐름의 역사성 안에서 이해하였다.¹⁴⁾ 존재가 폭발한 우주의 탄생은 현대과학에

11) Evelyn Mary Tucker, John Grim, and Andrew Angyal, *Thomas Berry - A Biograph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9), 120.

12) Thomas Berry and Brian Thomas Swimme, *The Universe Story*,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2); 『우주 이야기』, 맹영선 옮김,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13) 토마스 베리는 다음의 저서를 통하여 이에 관한 생각을 서술하였다. Thomas Berry, *The Great Work: Our Way into the Future*, (New York: Bell Tower, 1999); 『위대한 과업』, 이영숙 옮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9).

14) 우주의 팽창 속도를 역 계산해 추정한 지구의 나이는 137억 년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다. 최초의 폭발로부터 탄생된 우주는 100억 년에 걸쳐 팽창과 발전을 거듭하여 은하의 우주를 형성하였고, 40억 년 전 최초의 생명 세포 아리레스(Aries)가 탄생하였으며, 진보를 거듭한 우주는 6억 년 전 비로소 다세포 유기체들이 탄생하였다. 지구과학자들의 생명지질학적 시대 구분은 6억 년 전에서 포유류가 등장하는 2억2천만 년 전까지를 고생대로 분류한다. 이후 천체의 지구 충돌에 의한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멸종이 일어난 6천5백만 년 전까지의 시대를 중생대로 분류하고, 그 이후 새로운

의해 137억 년 전의 특정한 계기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우리는 지구학적 시대 구분에 따르면 약 6천5백만 년 전에 시작되어 생명의 창초가 충만했던 시기로서의 ‘신생대’에 속해있다. 원시 인류는 대략 3백만 년 전에 등장했다가 자취를 감추었고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생 인류의 시작은 대략 2십만 년 전으로 파악한다. 초기 인류의 문명은 구석기 시대를 이어오다가 1만2천 년 전부터 신석기 문명이 시작되었다.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 인간은 비로소 정착된 마을을 갖고 동물과 식물을 경작하기 시작하며 오늘날 우리가 인류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시작된 것이다. 지구 역사의 놀라운 업적으로 생각하는 이 시기는 가축화와 농경을 통해 동물과 식물의 세계에 더 많이 개입하며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의 세계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토마스 베리는 인간이 자연을 식량뿐 아니라 종교 의례의 희생 제물로 이용하였던 방식은 자연을 향한 폭력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보았다.¹⁵⁾ 그렇게 태동한 인류의 문명이 현대에 이르러 지구의 전체적 생명 시스템을 통하여 현실화된 것을 비판적 관점을 넘어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한 위협은 오랜 우주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온 어떤 리듬에 의해 서로 의존적으로 생명을 펼쳐가던 자연물에 대하여, 특정한 곳에 정착하여 발전된 인간의 문명이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지난 5천 년 동안 인간은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지식을 확장하였으며, 예술을 꽃피우고, 종교와 사원들을 짓고, 축제를 만들었다. 이러한 문명들은 인간의 자존감을 한껏 드러내는 것으로서 지구에 공존하는 다른 생명 시스템에 대한 배려는 결여된 것이었다.

특히 ‘발전’ 혹은 ‘진보’(progress)를 추구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가 그 위험을 배가시켰다고 보았다. 산업 혁명 이후 ‘진보’라는 이상에 지배된 인류의 사고는 지구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넓혀오면서 그것을 지구상의 생명체로서의 공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제하여 인간의 유익함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우주의 물리적, 과학적 측면은 진정한 우주 이야기의 전체일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객체를 다루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토마스 베리는 오직 이상과 방향성을 간직한 신화적 비전만이 주체적 측면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이 오랫동안

생명체들이 등장하여 꽃과 새 및 각종 포유류가 진화하며 번성하여 현재에까지 이르는 시기를 신생대로 본다.

15) 토마스 베리, 브라이언 스윙, 『우주 이야기』, 274.

안 추구하고 있는 ‘진보’란 왜곡된 신화라고 파악하였다.¹⁶⁾ 그것은 오로지 인류를 위하여 식량을 늘리거나, 질병을 통제하거나, 이송을 신속히 하거나, 통신 능력을 높이는 것일 뿐, 그 과정에서 지구의 통합적 기능에 가해지는 부담에 대한 평가와 성찰은 뒷전으로 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들이 발전시켜온 기계적 과정을 지구의 다양한 생명 시스템의 생물학적 작용에 적용하였고, 인간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진 이러한 시도는 20세기에 이르러 산업 문명을 통해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가는 시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이로 인한 자연 세계의 혼란은 21세기에 들어서 종이 멸종하고, 열대 우림이 소멸하고, 사막화가 진행되며, 대기가 혼탁해지고,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현상이 되어 인류에게 다가왔다. 토마스 베리가 인류 문명의 위험한 점으로 통찰했던 것들이 금세기에 이르러 현실이 된 것이다. 그는 생명력으로 충만했던 위대한 신생대에서 가장 중요하였던 생명 시스템은 심각한 피해를 보았고, 더 이상 창조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았다.¹⁷⁾ 이제 지구는 신생대의 종말에 도달하였으며 나아가 그는 신생대는 확실하게 끝났다고 단언한다.

3.2 생태대의 등장

지구 역사의 한 시대인 신생대의 물결은 저물지만 그렇다고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토마스 베리는 인류 역사의 단계가 우주의 신비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했던 ‘부족-사머니즘 단계’, 초월적 절대자 하느님에게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종교 문화적 시대’, 인간과 자연의 유대가 깨어지고 인간을 위한 자연의 착취가 이루어졌던 ‘과학과 기계 기술의 시대’를 거쳐 왔다고 보았다. 그러나 생명의 질서가 교란되고 파괴가 일어난 곳에서 치유를 위한 활동이 시작된다는 전망을 가진다는 점에서 토마스 베리는 신학이 가진 세계를 향한 긍정성으로서 창조적 비전을 드러낸다. 신생대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문명으로서 이제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시대에 대한 전망을 그는 생태적 시대 즉 ‘생태대’로 정의하였다.¹⁸⁾

16) Ibid., 375.

17) Thomas Berry, "The Emerging Ecozoic Period" in *Thomas Berry Dreamer of the Earth*, ed. Ervin Laszlo and Allan Combs, (Rochester: Inner Traditions, 2011), 12.

18) Thomas Berry, *Dream of the Earth*,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1988), 39-41. 『지구의

그는 정신성과 물질성이 일원적으로 존재하는 우주에서 정신이 깨어 오르는 진화를 통하여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는 샤르맹의 통찰을 그의 사상적 배경으로 가져왔지만, 샤르맹이 지나치게 인간에 관하여 낙관적 생각을 가진 점에는 동의하지 않았다.¹⁹⁾ 그것은 샤르맹의 진화 과정에 대한 개념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샤르맹이 인간 중심적이었다고 본다면 토마스 베리는 모든 자연물을 의식하는 생태 중심적 측면을 드러낸다.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신생대는 그 문명의 전환에 있어서 결단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인류는 현실로 닥친 생명 시스템의 붕괴와 기후 위기 등의 현상 앞에서 ‘생존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자연을 대상으로 바라보며 기술을 통하여 극복하려는 인간중심의 ‘기술대’(Technozoic)의 문명을 선택할 것인지,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며 진화하는 문명으로서의 ‘생태대’를 선택할 것인지 결단의 순간에 서 있다고 보았다.

토마스 베리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구약의 탈출기 상장을 가져와서 우리 시대를 서구 문명의 인간 중심적이며 분석적인 사고에서 탈출하여 모든 자연을 주체로 인식하며 신화적 정신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생태대로 이동하는 시대로 바라본다. 즉 현대의 인류는 왜곡된 ‘진보’ 신화에 근거한 과학 기술적 세계관의 인간 자폐적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러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정치, 경제, 사회적 접근으로부터 근본적이며 총체적으로 탈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생대를 벗어나 새로운 생태대로 진입하는 파스카(Pascha)가 이루어진다는 신학적 관점을 제안한다.

토마스 베리는 이 생태대의 시대를 ‘생명중심주의’(Biocentrism)와 ‘지구중심주의’(Geocentrism)의 시대로 전망하였다.²⁰⁾ 그것은 지구 공동체에 함께 존재하는 자연과의 공존을 자각하고 배려하는 문화로 전환해 가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시대이다. 떠오르는 새로운 문명으로서 생태대를 향한 당면 목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파괴적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앞서서 이러한 현상을 발생시킨 정신적 태도를 바꾸는 일이

꿈』, 맹영선 옮김,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3).

19) 이재돈, 「토마스 베리 우주론」, 『가톨릭 철학』 11(2008), 18-19.

20) Thomas Berry, Thomas Clarke, *Befriending the Earth: A Theology of Reconciliation Between Humans and the Earth*, Mystic, (CT: Twenty-Third Publications, 1991),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김준우 옮김, (교양: 에코조익, 2006), 71-75.

우선적인 것이 된다.²¹⁾

3.3 생태대의 조건

3.3.1 인간 의식의 변화: 유기체로서의 지구 인식

토마스 베리는 행성 지구가 우주 안에서 태어났으며, 지구는 그 안의 다양한 생태 지역들의 긴밀한 연결로 이루어진 생명 공동체라고 본다. 그리고 인간은 그 생명 공동체의 복합체 안에서 출현한 것이다.²²⁾ 그러므로 지구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향유할 수 있는 자산만의 것이 아니라 지구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 공동의 것이다. 기본적 수준의 다양한 단위 생명체들이 개별적으로 독자적 개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상위 복합체 안에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의 공동체적 존재로 이해하는 방식은, 지구를 유기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실체로 인식하도록 한다.²³⁾

그러나 지구를 유기체적 존재로 이해하기에 앞서 그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을 고유한 가치를 갖는 주체로서 인식해야 한다. 즉 우주란 인간의 의식을 중심으로 한 객체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각각의 존재들이 주체로서 맺어가는 친교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²⁴⁾ 이것은 세 위격의 개별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친교의 일치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페리코레시스적 존재 방식을 세계의 모든 창조물의 존재 방식에 관한 유비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자연의 모든 창조물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개체성을 보존하면서 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면서 모든 창조물 안에 내재하는 하느님을 통해 세계의 모든 존재는 세 위격의 상호 내주적 존재 방식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가 된다.

주체적 생명체들로 이루어진 지구는 서로 상이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하는 생명체들과 그들에 의해 표현되는 생태 지역적 양식들의 상호 유기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동체적 실체를 이룬다. ‘유기적’(organic)이라는 의미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지구의 모든 국면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게 영향

21) 토마스 베리, 브라이언 스윙, 『우주 이야기』, 390.

22) 토마스 베리, 『지구의 꿈』, 247.

23) Thomas Berry, *Befriending the Earth*, 96.

24) 토마스 베리, 브라이언 스윙, 『우주 이야기』, 378.

을 주고 있고 한 생명체의 생존 또한 다른 생명체에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토마스 베리는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를 일차적인 존재로,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구성하는 부차적인 존재 중 하나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상호 의존되어 있는 구성원들은 서로 호혜적 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토마스 베리는 신생대를 통하여 발전을 거듭한 인간이 결여하고 있는 점이 이러한 주고받는 관계에 관한 인식의 결여이며, 그로 인해 일방적으로 자연을 착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와 교감하는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과, 강과, 대지와 다양한 생명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인간 실존이 대아적 존재인 지구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신체적 감각을 회복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지구를 다양한 기능들이 통합된 하나의 유기체적 실체로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 가능성’이 생태계의 생존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경제적 활동은 지구의 생산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고, 의료 활동은 지구의 건강을 포함하여야 하며, 종교 활동은 자연을 통하여 드러나는 신의 계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미래의 생존 가능성을 위하여 인간이 수행하여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3.2 인류의 책임과 행동양식의 변화

토마스 베리의 생태론은 우주에 관한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신비적인 성찰에서 시작된다. 150억 년 전 우주 생성의 시초로부터 영겁의 세월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행성계의 지구에서, 1만 2천 년 전부터 시작된 인류의 문명과 고작 두 세기 전부터 가속화된 인간의 지구 환경 교란 행위가 창조의 시대였던 신생대의 종말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화론적 접근은 우주의 움직임을 비가역적인 변화가 연속되는 과정으로 보도록 한다. 세계의 모든 물질에 적용되는 엔트로피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한번 잘못된 자연을 되돌릴 방법은 없다. 급속한 인간 문명의 자폐적 상황은 수억 년 전의 고생대로부터 생성된 화석 연료나 수천만 년 전부터 형성된 열대 우림 등을 거러김 없이 고갈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한번 없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대로 전망하는 미래의 문명은 자연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이어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인간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로 자리매김된다.

피조물로서 인간의 능력이란 자연에서 존재하는 풀잎 하나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은 세계 안에서 초월적 창조성을 인지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의 몫이 될 수 있다.²⁵⁾ 그것이 지구에서 생존하고 있는 하나의 종으로서 인간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지구와 자연을 지배하여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의 존재들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주체로 인식하여 보살핌의 관계를 가져가는 관계와 관련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멸종하는 종들이 빈번하게 나타남으로써 창조의 다양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생태계를 보살피는 기술의 발전이나, 지구 상에 존재하는 화석연료와 수많은 자원을 고갈시키는 인간 문명을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변화하는 기술 등의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사용하고 버리는 쓰레기가 지구가 감당할 능력을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폐기물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자연계 안으로 순환시키도록 하는 노력 또한 인간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운송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의해 세계화로 치달았던 인간의 활동은 이제 자신이 실제적 영향력이 미치는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 지역적 맥락의 활동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최근의 팬데믹 현상은 급속히 진행되던 세계화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면서 인간의 기술적 발전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 재편하는 것에 사용하려 시도하게끔 한다.

그러나 항상 인간 중심적 시도가 자연과 생명에 부담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것을 경계하며, 토마스 베리는 신생대의 문명 전환은 ‘기술대’의 방식이 아니라 모든 자연의 주체들이 중심이 되는 ‘생태대’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인간 중심적 의지가 반영된 기술대는 산업사회를 거쳐 오며 가속화된 기술의 발전이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신화에 의해 형성된 신념이다. 이것은 자연과 조화로운 공생보다 인간에 의해 발전하는 정교한 기술적 통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념은 생태대로의 문명 전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환경 보호를 위한 인간의 노력이 현대의 산업 기술 사회의 발전에 대한 걱정이나 인간이 향유하고 있는 소비 문화의 붕괴를 염려한 것이라면, 그것은 기술대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진정한 생태대로의 문명 전환이란 인간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마스 베리는 이것을 산업 기술에 근거한 기술대의 문명과 지구의 자기

25) Ibid., 385.

조직 과정에 근거한 생태대 문명의 피할 수 없는 긴장과 갈등이라고 보고 있다.²⁶⁾

산업 사회를 비롯하여 인간 사회의 각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지속 가능’이라는 개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피해 가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토마스 베리는 그보다 ‘생존 가능’(viab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변화의 의미를 간직하고자 하였다.²⁷⁾ 생태대를 맞이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인간중심의 과오를 수정하는 기술대적 접근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신생대의 연장일 뿐이다. 문명의 전환은 현대 산업·상업 문화의 신화에 대항하여 지구 공동체를 먼저 의식하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의 변화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며, 동시에 인간 활동의 모든 면에 있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노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3.3.3 총체적 프로그램의 전환

현대에 있어서 특히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서구 문명이 광범위한 지구의 파괴적 상황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토마스 베리는 강조한다.²⁸⁾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근대 이후의 서구 문명이 상업·산업 사회를 통하여 인간이 지구공동체의 왕이며 영광이라는 믿음을 건설하였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통하여 전 지구적 상황으로 전파되었음을 경계한다. 토마스 베리의 우주론은 현대의 과학적 발견의 통찰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 체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우선적 문제는 당면한 생태적 문제라는 점을 발견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아니라 우주와 자연을 문명의 중심 주제로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토마스 베리는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을 통합적인 역동적 관계로 사고하는 동양 사상에서 문명 전환적 대안을 발견하고 있다.

문명의 전환이란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각성과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다. ‘진보’라는 개념은 인간만의 진보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위한 진보이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발전을 수치로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의 개념보다 지구총생산(GEP)의

26) 토마스 베리, 『위대한 과업』, 148.

27) Thomas Berry, "The Emerging Ecozoic Period", 14.

28) 토마스 베리, 브라이언 스윙, 『우주 이야기』, 395.

개념이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⁹⁾ 지구를 약탈하는 진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정치체계가 오직 국가적 이익이나 인간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정치 체계는 전체 지구공동체에 대한 관점을 갖는 새로운 정치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토마스 베리는 국가 간의 연합(United Nations)은 종들의 연합(United Species)이 되어야 하고, 민주주의(democracy)는 생명주의(biocracy)로 변해야 한다는 전망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태대를 위하여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도 지구와 온 생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윤리적 원칙도 새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자살이나 살인 그리고 종족학살 등 인간의 생명에 집중한 윤리적 기준을 확장하여 자연의 생명체를 압살하는 생태계 파괴(biocide)나 자원의 고갈, 기후 문제 등을 유발하는 지구 파괴(geocide)에 관하여서도 동일한 악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³⁰⁾

토마스 베리는 그리스도교가 단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나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만 집중한다면 인류의 미래에 관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³¹⁾ 또한 그동안 서구 중심의 그리스도교 신학이 인간중심주의의 구원론에 매몰되어 우주와 자연에 관한 영적 직관이 사라져 버린 것을 그리스도교가 종교적 자폐증을 앓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³²⁾

그는 이성적이고 분석적 과정 이전에 예언자들이 경험하였던 직관적 통찰을 회복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그는 우주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의 영을 관상하며 자연과 우주를 직관하여 통찰하는 인디언들과 동양적 영성의 지혜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우주와 하느님과 인간이 동일한 이야기 속으로 통합되는 세계관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되도록 ‘하느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에 모든 창조물에 현존하며 일출과 일몰, 생물의 성장, 계절의 순환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비한 힘으로 경험한 ‘위대한 영’(The Great Spirit)이라는 표현을 쓸 것을 제안하였다.³³⁾

이에 관하여 유신론과 범신론의 논쟁을 끌어들이어 도식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오히려

29) Ibid., 376.

30) Thomas Berry, Thomas Clarke,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160.

31) Jai-Don Lee, “Towards an Asian Ecotheology in the Context of Thomas Berry’s Cosmology: A Critical Inquiry”, Ph.D. Dissertation, Toronto School of Theology, (Toronto, 2004), 93.

32) Ibid., 44-45.

33) Ibid., 30.

하느님의 무한성을 해치는 낡은 방식이다. 그가 제시하고자 하는 신관은 절대적 신비의 초월적 하느님이 세계의 모든 것에 깃들여 계시며 우리는 세계 안에서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범재신론(pantheism)의 사유이며, 이는 현대에 있어서 통합적 방식의 생태적 신론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사유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 1260-1328) 등의 신비적 전통을 통하여 교회 안에 꾸준히 존재하여 온 것으로 전통을 벗어난 하느님 이해라고 볼 수 없다.

종교가 문화적인 영역뿐 아니라 우주적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보다 통합적인 방식의 동양적 사유가 생태 문명을 위한 대안이라는 토마스 베리의 통찰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이재돈은 동양적 사유체계가 가진 하느님과 우주 그리고 인간의 역동성을 방법론으로 하는 아시아 생태 신학을 제안하고 있다.³⁴⁾

4. 나가가기: 신학적 전망

토마스 베리는 ‘생태적’(ecological)이란 용어보다 ‘생태대’(ecozoic)의 전망을 강조한다. 전자가 사물의 상호 관계에 관한 측면을 드러내는 용어라면, 후자는 상호 작용하는 관계가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생명 체계와 그것이 작용하는 시공간적 의미를 갖는 지구생물학적 용어이다. 그것을 신학적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토마스 베리가 제시한 ‘생태대’ 개념은 자원을 착취하며 자연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몰아간 비관적인 인간-지구 문명의 상황에서, 지구-인간 공동체의 통합적 전체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인간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우선적 존재가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포함하는 대아적 지구적 공동체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가진 하나의 구성원이 된다. 즉 지구 공동체가 인간보다 우선적이라는 관점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우주의 모든 사물이 주체적 지향을 갖고 있으며, 개별적 계기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하나의 실체를 형성한다는 유기체 철학의 존재론은 지구적 공동체를 일차적 존재로 인식하는 토마스 베리를 긍정하는 철학적 관점을 제공한다. 세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 감동과 고통을 나누며 세계의 모든 계기들을 통합하는 화이트헤드의 신 개념은, ‘위대한 영’으로 표현하고자 제안한 모든 창조물에 현존하는 하느님에 관한 토마스

34) Ibid., 95.

베리의 서술과 함께, 자연 생명의 역동과 순환 속에서 현세에 내재하며 공감하는 초월적 하느님이라는 범재신론적 관점을 공유한다.

토마스 베리가 제시한 생태 문명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모든 자연의 존재와 사물의 현상 및 사회의 작용을 유기적이며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문명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은 서구의 분석적 방법론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정신과 물질, 인간과 자연, 신과 세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이 필요하며, 신학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그리스도교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아, 교회 생성기로부터 수세기에 걸쳐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동방교회에 의해 주도되었던 시기를 ‘제1 교회’로 보고, 이후 로마의 라틴 교회에 의해 주도되었던 교회를 ‘제2 교회’로 부른다면, 2천 년대 이후 탈 유럽화하는 교회를 ‘제3 교회’라고 분류할 수 있다.³⁵⁾ 이미 유럽과 미국의 교회는 쇠퇴하는 반면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삼 세계의 신자 비율이 전체 가톨릭의 70%에 육박하는 현실은³⁶⁾ 제3 교회의 에토스에 기반을 두는 신학 가능성을 가속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신학의 주류적 맥락은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에 초점을 맞추어 배타주의에서 포괄주의적 입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토마스 베리는 교회의 배타주의적 신학뿐 아니라 포괄주의적 신학 역시 하느님의 온전한 계시를 드러내는 데에 부족하다는 다원주의적 입장을 보였다.³⁷⁾ 그는 생태적 관상이란 인간이 다른 종들과의 관계를 재발견하는 것으로, 아시아 종교³⁸⁾에 사랑의 우주적 차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³⁹⁾ 서구의 이원론적이며 분석적인 철학 전통을 통하여 형성되었던 그리스도교의 신학은, 아시아에 이르러 동양사상의 배경에 의해 재해석 되면서, 생태론의 측면에서 기존 서구 신학이 보여주지 못했던 아시아적 탁월함을 발견해 가고 있는 중이다.⁴⁰⁾

35) 심상태, 『한국교회와 신학-전환기의 신앙이해』, 신학선서14,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8), 174.

36) 교황청 통계연감(Pontifical Yearbook and the Statistical Yearbook of the Church, 2020년 3월 25일)에 따르면 총 13억 2900만 가톨릭 인구 중 대륙별로는 유럽 21.5%, 아메리카는 48.3%, 아시아는 11.1%로 구성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37) Jai-Don Lee, “Toward on Asian Ecotheology”, 134.

38) 아시아의 정신적 맥락을 형성하는 불교, 힌두교, 도교, 유교 등의 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을 거절하는 포괄적 세계관을 통하여 생태 문명적 측면에서 풍부한 영성을 갖고 있으며, 아시아의 에토스에 기반을 둔 종교들의 생태적 탁월성은 불교의 화엄사상(華嚴思想), 도교의 자연 이해, 유교적 인본주의적 사회생태론, 오르빈도(Aurobindo Ghose, 1872-1950)의 통합적 비 이원론 사상 등을 통하여 전승되어오고 있다.

39) “중국 사회에서 사랑, 자비 또는 보살핌으로 번역되는 仁이라는 말은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용어일 뿐 아니라 우주적 힘이기도 하다.” Evelyn Mary Tucker, *Thomas Berry-A Biography*, 220.

아시아의 에토스가 인간과 자연을 함께 포함하는 비 이원론적이며 유기체적인 세계관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서양 전통보다 생태 문명에 근접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이전부터 생성된 종교들에 의해 정신적 사유 방식과 문명이 형성된 아시아에 도달한 그리스도교가, 서양의 사유 방식에 의해 형성된 전통적 교의와 문화를 이식하려는 편협한 선교의 관점을 넘어선다면, 하느님과 인간 및 자연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생태적 방식으로 신학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기체 철학의 범 경험주의적 주체성과 상호연결적 공동체로서의 존재 구조, 토마스 베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생태 중심의 세계관과 우주의 신비를 간직한 이야기의 회복 등의 담론들은 아시아 신학의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아시아 신학이 단순히 지역 교회의 신학으로서가 아니라 생태대를 향한 3천 년대 교회의 새로운 언어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면,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반생태적 정신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받았던 그리스도교에 축복이 될 수 있다.

40) 가톨릭 사제로서 힌두교를 배경으로 우주신인론(cosmotheanthropic))의 신학을 전개한 레이몬 파니카(Raimundo Panikkar, 1918-2010), 장자의 제물론(齊物論)을 근간으로 천지인삼재(天地人三才)가 동일한 하느님에게서 생겨 나와 한 몸을 형성한다는 사상을 펼친 텅 빈 하느님 신학의 다석(多夕) 유영모(1890~1981), 아시아의 자발적 가난의 영성을 해방의 차원에서 복음적으로 해석하며 공생(symbiosis)의 신학을 펼친 알로이시우스 피에리스(Aloysius Pieris, 1934~) 등의 신학 작업은 특히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배경으로 그리스도교의 생태론을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하여 왔다. Jai-Don Lee, "Toward on Asian Ecotheology", 154-164.

참고 문헌

- 그리핀, 데이비드(Griffin, David Ray), 장왕식 옮김, 『화이트헤드 철학과 자연주의적 종교론』, 동과서, 2004.
- 베리, 토마스(Berry, Thomas), 『위대한 과업』, 이영숙 옮김,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2009.
- _____, 『지구의 꿈』, 맹영선 옮김,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3.
- _____, 스윌, 브라이언 토마스(Swimme, Brian Thomas), 『우주 이야기』, 맹영선 옮김,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 _____, 클락, 토마스(Clarke, Thomas),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김준우 옮김, 고양: 에코조익, 2006.
- 프란치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교황 회칙, (201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 심상태, 『한국교회와 신학-전환기의 신앙이해』, 신학선서14,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8.
- 이재돈, 「토마스 베리의 우주론」, 『가톨릭 철학』 11(2008).
- 이정용, 『역의 신학: 동양의 관점에서 본 하느님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 이세형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캡, 존(Cobb, John B.), 『화이트헤드 철학과 기독교 자연신학』, 이경호 옮김, 서울: 동과서, 2015.
- 홍태희, 「삼위일체론의 생태신학적 함의-칼 라너, 조셉 브라켄, 레오나르도 보프의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20.
- 화이트헤드, 알프레드 노스(Whitehead, Alfred North), 『과정과 실재: 유기체적 세계관의 구상』, 오영환 옮김, 서울: 민음사, 2003.
- Berry, Thomas, “Christianity's Role in the Earth Project.” In *Christianity and Ecology*, edit. Dieter T. Hessel and Rosemary Radford Ruether, 127-34.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_____, *The Great Work: Our Way into the Future*, New York: Bell Tower, 1999.
- _____, “The Emerging Ecozoic Period” in *Thomas Berry Dreamer of the Earth*, ed. Ervin Laszlo and Allan Combs, Rochester: Inner Traditions, 2011.
- _____, *Dream of the Earth*,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1988.

- Berry, Thomas; Swimme, Brian Thomas, *The Universe Story*,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2.
- Berry, Thomas; Clarke, Thomas, *Befriending the Earth: A Theology of Reconciliation Between Humans and the Earth*, Mystic, CT: Twenty-Third Publications, 1991.
- Griffin, David Ray, “Whitehead’s Philosophy and some General Notions of Physics and Biology”, in *Mind in Nature: Essays on the Interface of Science and Philosophy*, Eds. John B. Cobb & David Griffi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77.
- Lee, Jai-Don, “Towards an Asian Ecotheology in the Context of Thomas Berry’s Cosmology: A Critical Inquiry”, Ph.D. Dissertation, Toronto School of Theology, Toronto, 2004.
- Lee, Jung-Yong, *The Trinity in Asian Perspective*, TN: Albingdon Press, 1996.
- _____, *The Theology of Change: A Christian Concept of God in an Eastern Perspective*, NY: Orbis Books, 1979.
- Meadows, Donella; Meadows, Dennis; Randers, Jorgen; Behrens, William, *Limits to Growth: A Report for the Club of Rome’s Project on the Predicament of Mankind*, New York: Universe Books, 1972.
- Bobuhara, Tokiyuki, “Divine Ecozoics and Whitehead’s Adventure or Resurrection Metaphysics”, *De Gruyter Open*, (2015, 11), 494-511.
- Tucker, Evelyn Mary; Grim, John; Angyal, Andrew, *Thomas Berry – A Biograph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9.
- Whitehead, Alfred North, *Process and Reality*, Corrected Edition, ed. David Ray Griffin and Donald W. Sherburne, New York: The Free Press, 1929, 1978, 2013.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과 신학적 전망: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토마스 베리의 지구학을 중심으로

홍태희

인류의 증가와 산업 성장이 지구의 수용한계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제기된 이후 생태 위기는 환경 개선의 접근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속가능을 넘어 생존가능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인간중심적 근대문명의 총체적 전환만이 바른 접근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명 전환적 접근은 철학에 있어서 범 경험주의 개념에 따른 탈 인간중심적 주체성의 관점을 통한 유기체적 세계관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것은 모든 존재자가 상호 연결된 유기체로서 그 공동체의 이상과 목적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인간중심의 문명은 자연을 포함한 모든 존재자의 문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신은 이러한 세계의 진화의 목적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토마스 베리는 현대를 지구학적으로 ‘신생대’로부터 ‘생태대’라는 새로운 문명으로 전이되는 시기로 전망한다. 생명의 창조가 번성하였던 신생대는 인간중심적 진보의 왜곡된 신화가 생명 시스템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더 이상 창조를 지속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지구의 역사는 문명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고 전망하며 그것을 ‘생태대’로 정의하였다. 그것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비롯한 총체적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이다.

생태문명은 분석적인 서양문명보다 포괄적인 동양문명에서 가능성을 발견한다. 통합적인 사고를 갖는 아시아의 종교성은 그리스도교가 아시아로 확장되면서 역으로 아시아 신학을 통해 새로운 생태문명을 갖는 그리스도교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주제어: 생태문명, 생태대, 생태신학, 토마스베리, 유기체철학.

Transition to Ecological Civilization and Theological Prospect:
Focus on Organic Philosophy of Whitehead and Geology of Thomas Berry

Hong, Tae Hee

Environmental improvement could not be the solution for a modern ecological crisis. The transition of civilization is gaining persuasive power through an organic world-view of the perspective of post-anthropocentric subjectivity according to the concept of pan-experientialism. This means that all beings are interconnected, taking into account the ideals and purposes of the community. Accordingly, the anthropocentric civilization must be converted into a civilization of all beings including nature. God has meaning as the purpose of the evolution of this world.

Thomas Berry sees the modern world as a period of transition from the "Cenozoic" to a new civilization called "Ecozoic." In the Cenozoic era, the distorted myth of anthropocentric progress has damaged the life system and lost the ability of creation. However, the Earth's history predicts that a new era will be opened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civilization, and it has been defined as an "ecozoic".

We can find more possibilities in the Eastern way of thought than Western for Ecological civilization. The ethos of Asian religions can be a blessing for Christianity to be reborn for a new ecological civilization through the Asian way of theology.

Key Words: Ecological Civilization, Ecozoic, Ecotheology, Thomas Berry, Organic Philosophy.

논문 투고일	2021년 3월 09일
논문 수정일	2021년 5월 18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1년 4월 27일
